

# 일일이 우리손으로 찍어 펴낸 생태사진집

웅진출판 펴낸 '한국의 자연탐험' 시리즈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이나 초원을 누비는 동물은 잘 알아도 우리 땅엔 어떤 동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게 요즘의 어린이들이다. 동물원의 우리 안에 갇힌 호랑이나 기린,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와는 친숙해도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동물들 하고는 영 낮은 것이 또한 요즘의 학생들이다. 나아가, 자연 보전과 환경 문제가 전지구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자연조차 온전한 제 모습으로 보여 주는 출판물을 만날 수 없었던 게 저간의 우리 사정이다.

(주)웅진출판이 최근 펴낸 '한국의 자연탐험' 시리즈는 그런 우리들의 주목에 값한다. 1차분만도 전55권에 달하는 대작의 덩치도 덩치려니와, 그 대작의 내용을 채우는 것들이 우리땅과 어울려 사는 우리의 동식물들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는 것.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우리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연탐험'은 국내 최초의 종합 생태 보고서로서 부족함이 없는 역저로 평가된다.

## 이 땅의 모든 생물 체계적 집대성

'한국의 자연 탐험'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모든 동식물들의 자연 생활사를 생생한 사진과 간명한 문장으로 그려낸 일종의 생태 사진집이다. '우리나라의 생태사진집'이라고 일컬을 만한 기왕의 작업들이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연탐험 시리즈는 몇가지 점에서 기왕의 이 방면 출판물들과 뚜렷하게 변별되는데, 대개의 경우 그 변별성은 곧 장점이 되기도 한다.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 또한 출판사측의 자화자찬만에 그치지지는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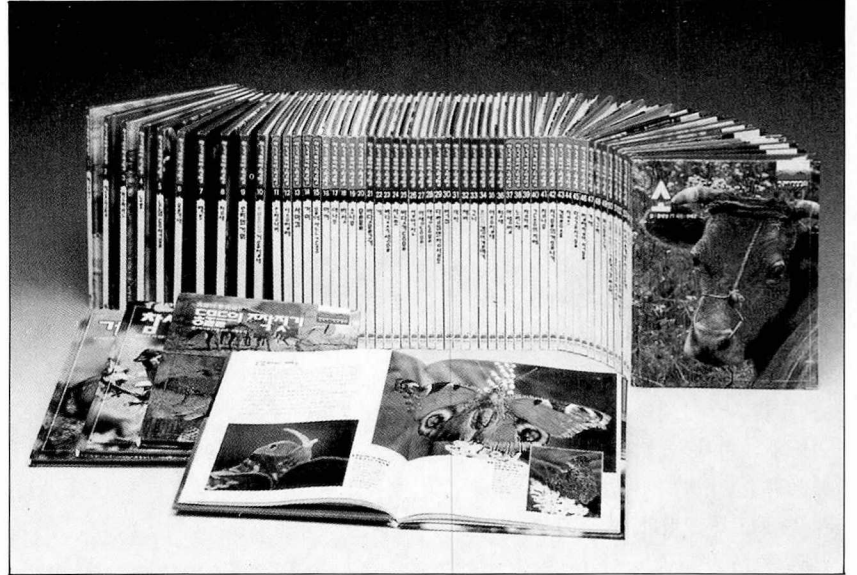
첫째는 이 시리즈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동식물'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체계적 집대성인 셈인데, '한국의 자연탐험'을 이루는 다음과 같은 목록 구성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이제까지 나온 생태도감류에 비해 포괄성과 참신함에서 크게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목록들은 각급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생물 4백여종을 비롯해 이미 발매된 이 방면 책들에 나오는 것들과 편집위원회(위원장 김훈수)의 천거를 기본자료로 해서 선별됐다. 첫머리동물 (9권); 노루, 야생동물(상·

**'한국의 자연탐험'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의 자연생활사를 생생한 사진과 간명한 문장으로 그려낸 일종의 생태사진집이다. 최근 제1차분 55권을 선보인 이 책은 모두 70여 항목에 이르는 목록구성의 방대함과 충실성,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소화해내기 위해 기울인 출판사와 필자들과 사진작가들의 노력이 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하), 다람쥐와 청설모, 소, 염소, 제주 조랑말, 삼살개와 진돗개, 박쥐/조류(11권); 참새, 제비, 까치, 고니, 백로, 갈매기, 겨울철새, 물가새, 오리와 거위, 텃새, 여름철새/곤충류(8권); 곤충의 지혜, 노린재, 사슴벌레, 야생벌, 사마귀, 잠자리, 물에 사는 곤충, 호랑나비/어류(7권); 개, 가재(갑각류), 바닷물고기, 바닷속생물, 민물고기, 바닷가동물, 산호(원생동물)/양서 파충류(2권); 개구리, 거미(무척추동물)/식물(10권); 소나무, 참나무, 물푸, 식물의 겨울나기, 덩굴식물, 대나무, 잡초, 이끼, 버섯, 벌레잡이 식물/단위생태계(5권); 백두산, 설악산, 한라산의 동식물, 광릉 숲, 눈의 동식물/기타(3권); 동물의 행동(상·중·하)

둘째는, 이렇게 선정된 생물종들을 '자연생활사'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본문 40면 해설 16면으로 이루어진 각권의 내용은 해당 동식물의 생태에 관한 피상적 관찰보다는 그들의 '한살이'를 드러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가령 한국인이면 누구나 친숙하게 여기는 '소나무편'(제19권)을 보면, 가을철의 잎갈기부터 시작해 꽃이 피고 솔방울이 익는 과정, 솔방울에서 떨어져 나온 솔씨가 나무로 자라 그들끼리 생존경쟁을 벌여 마침내 한 그루의 소나무로 커가는 과정 등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셋째는 목록구성의 방대함을 감당하고 그 내용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 생물학계와, 특히 사진작가들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공들여 세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원고 집필만 해도 편집위원 8명을 포함해 모두 30여명의 전문가



'한국의 자연탐험' 1차분 55권. 이땅의 생물종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생태사진집이다.

들이 참여, 각권 200자 원고지 100매 안팎에 해당 동식물의 모든 것을 간명한 문체로 알기 쉽게 담아내고 있다. "내로라는 국내 생물학자는 거의 모두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물학의 대중적 개방이란 의의가 크다"는 것이 출판사측의 자부이다.

그러나 보다 주목돼야 할 바는 이 책이 생태 '사진집'이라는 점이다. 언어를 통해 막연히 상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실물사진들을 직접 보여 준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며, 그 사진들 가운데 이 책 저 책에서 '오려 모은' 것은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강운구씨 등 국내작자들이 직접 찍은 새 사진들만으로 이만한 규모의 전집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연탐험'은 우리 출판의 축적된 역량을 시급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으로 고평된다.

수록 사진의 질에 있어서도 일단 생태학적 사실의 충실한 재현에 우선 순위를 두되 사진 자체로도 뛰어난 작품성을 갖도록 배려해 야마추어적 성실성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기왕의 생태도감류와 구별된다. 정지 사진으로 잡아낸 박쥐의 초음파 비행 장면, 일주일간의 짧은 지상생활을 위해 땅속에서 7년을 보내는 매미의 날개돋이 순간, 일본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노린재의 라이프 사이클 추적 등이 심미적 아름다움을 동반한 생태적 사실의 사진적 재현의 몇가지 좋은 예이다.

## 생태적 사실재현과 심미적 배려 조화

'한국의 자연탐험'은 그 규모에 걸맞게 긴 시간과 많은 인원,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12월 회사 망년

회 석상에서 윤석금 회장의 오더가 떨어졌다"고 기억하는 편집부장 김갑수씨에 따르면 이듬해 1월 작업을 전담할 생태개발팀이 발족하고 이어 편집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만4년이 넘는 기간에 연인원 200여명의 인력과 15억여 원에 이르는 개발비가 동원된 끝에 이번의 1차분 전 55권이 선보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특히 사진촬영팀의 수고가 컸는데 "깊은 산속이나 외딴 섬에서 몇날 며칠씩 야영하느라 간첩으로 오인받아 고생하는가 하면, 야생동물들이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비누와 담배를 멀리하며 동물 같은 모습으로 지내기도 일쑤였다"고. "그러나 덕분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안 가본 데 없이 살살이 뒤지고 다닐 수 있어 좋았다"는 사진부 차장 윤광준씨의 경우 촬영팀에 합류할 당시 구입했던 승용차를 3년도 안돼 갈아치울 만큼 강행군을 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전문가가 돼 버리는 가외의 소득까지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또한 그의 말이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한국의 생태 슬라이드가 모두 6만여컷에 이르는데, 그 중에는 수백종에 이르는 미기록종 어류와 흰 제비나 흰까치 같은 보기 드문 생태현상들, 그리고 황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희귀 동식물의 모습 등이 포함돼 예정대로 전 70권이 완간될 경우 다큐멘터리 사진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기대된다. 출판사측은 '한국의 자연탐험'을 통해 얻어진 성과와 노하우를 토대로 앞으로도 생태 관련 도서 개발을 꾸준히 지속할 계획인데, 이번 책이 아동용으로 편집된 것인 만큼 성인용 출판에도 관심을 갖고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